

'국가정원' 5가지 테마 구상

익산 용안생태습지 '기본계획·타당성' 중간보고회 관계 기관·부서 협업, 도내 최초 국가정원 지정 박차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지방)정원 조성을 추진 중인 용안생태습지가 5가지 테마로 구상될 예정이다.

시는 용안생태습지에 대한 지방정원 지정 절차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가 정원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일 익산시청 회의실에서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지

방정원 지정에 대한 절차와 타당성을 보고받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용안생태습지에 대한 지방정원 조성 방향은 아름다운 노을을 즐길 수 있는 '빛과 노을의 정원', 습지에 서식하는 식물을 살펴볼 수 있는 '비림의 습지정원', '물과 생명의 정원', 지역 예술문화의 특징을 살린 '예술문화의 정원', 백제 문화가 숨 쉬는 '백제역사정원' 등으로 구상되고 있다.

특히 용안생태습지의 생태환경 특징을 잘 나타내 줄 '비림의 습지정원'과

'빛과 노을의 정원'을 중점 테마로 정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용안생태습지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업 활동을 진행하며 도내 최초 국가정원 지정에 힘을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정원은 산림청에서 순천시 순천만·울산시 태화강 2곳을 지정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관리하고 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게 부지를 조성해 관리해야 하며, 이후 전북도의 지방정원 지정을 거쳐 최종 국가정원으로 승격·지정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재훈기자



군산시는 군산국가산업단지내 소재한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생산기업인 나라바이오(주)가 지난 4일 베트남 50만달러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라바이오 농업자재 베트남 수출

군산시, 국가산업단지내 친환경 생산기업 50만달러 첫 수출

군산시는 군산국가산업단지내 소재한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생산기업인 나라바이오(주)가 지난 4일 베트남 50만달러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라바이오에서 생산중인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와 작물생육 토양개량제를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 베트남에 현지대인을 두고있는 수출업체인 (주)카리즈(대표 김재국)와 수출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첫 수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베트남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나라바이오는 지난 1년 반 동안 꾸준한 성분검사와 필드테스트를 통해 베트남 현지 정식 수입허가를 받았으며, 베트남 호치민 농산물 공급지인

날랏을 중심으로 수출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날랏은 베트남의 고령지 지역으로 베트남의 대표적인 채소류, 과채류, 과실류 등을 생산하는 주산지로서 우리나라 농업인들 중 일부가 현지에서 딸기, 버섯, 채소류 등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 수출확대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출 기념식에 참석한 신현승 군산시 부시장은 "지난해 우리 군산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한 나라바이오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첫 수출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기자

군산대,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 협의회 개최

지방대학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 혁신 교육 모델 창출

군산대학교는 지난 3일 군산 은파팰리스 호텔에서 2021학년도 제2차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국중협)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고등교육 생태계 변화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비한 국공립대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 교육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며, 이날 지역 기관 국공립대학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개진되었다.

2021학년도 제2차 협의회에는 국중협 회원교 18개 대학 총장,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비발차단용 아크릴 칸막이



군산대학교는 지난 3일 군산 은파팰리스 호텔에서 2021학년도 제2차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국중협)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를 설치하고,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총장협의회 주요 안건은 국중협 대학위기 공동대응 방안, 국중협

전산서무관 정원배정 요구, 국립대 공무원(행정직) 결원 보충 등이고, 우수 사례로서 군산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의 '햇빛햇살담원 카톡 상담'이 소개되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시간여행축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군산시가 코로나시대에 군산시간여행 축제 활성화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일 시청에서 축제관광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익준 군산시장, 김영일 시의회 부의장과 연구발표로 나선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현 중앙대교수), 이수범 경희대 교수, 류인평 전주대교수 등 국내 축제전문가 12명, 군산시간여행 축제추진위원회위원, 군산시의원, 지역청년활동가 등 5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축제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의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장진만 남도음식문화관산지 총감독의 '시간여행축제 공간 활성화 방안'에 따른 킬러콘텐츠 개발 ▲서철현 대구대학교 교수의 '문화관광축제 발전방안' ▲류재현 서울World DJ Festival 총감독의 '시간여행축제 글로벌 콘텐츠 제언'의 주제 발표 후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패널토론 및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5월 18일 국내 축제전문가 및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 지역의 청년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두 번째 결전 토론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간여행축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 2020년 군산 시간여행축제는 취소됐으나 올해 축제는 하반기 전국민 백신접종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짧은 기간 대규모의 밀집도 높은 축제가 아닌 기간을 늘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짜임새 있는 축제로 계획되고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 판로 확대 '척척'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이 국내 최고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에 이어 수도권 학교급식까지 공급하게 되면서 명품 쌀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지역 친환경 쌀의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농가의 판로 확보와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탐마루 친환경 쌀을 오는 9월부터 2년 동안 서울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연간 200여톤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4월 21일 해당 급식의 친환경 쌀 공급 입찰에 참여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13일에는 학교급식 현지실사팀이 탐마루 쌀 가공 경영체인 삼기농협에 방문해 시설·품질·위생관리·안전성 등 총 7개 항목을 2차(현장) 평가했다.

이어 지난 2일 실시된 3차 평가(품평회)에서 PPT 발표와 식미 테스트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 1·2·3차 평가에서 모두 고득점을 획득함으로써 최종 노원구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업체 5개소 안에 선정됐다.

앞서 시는 국내 최고 식품기업인 CJ에 지역 친환경 유기농 쌀 150여톤을 공급하기로 확정된 바 있다.

박중수 미래농정국장은 "서울시 노원구 학교급식 쌀 공급을 계기로 수도권의 다른 자치구에도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CJ 등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해 익산 친환경 쌀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군산시는 6일 오전 10시 나운동 군경합동묘지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현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식은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묘역 순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념식 행사에는 김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김영일 시의회 부의장과 기관 및 보존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등 최소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총발사, 애국가 제창, 추념사 및 현충일 노래 등은 생략해 축소 됐으며,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 참석자 간 거리두기 좌석 배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행사를 진행했다.

/군산=한정봉기자

군산시, 선유도해수욕장 개장대비 사전 현장점검

군산시는 7월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 4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역사회의 산발적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백신 예방접종의 가속화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13개 관련부서가 참여했으며 신현승 부시장 주재로 해수욕장 운영 및 방역관리 등 개장준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용객 불편 최소화 및 안전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시는 해수욕장 전역에 안전 및 방역 감시망구축을 위해 펜스를 설치하고 충분한 방역인력을 배치해 출입구 4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선유도해수욕장은 오는 7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39일간 개장한다.

/군산=한정봉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